



몽골 출신의 오길새컨·무흐치맥씨 부부가 2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일자리 정보를 찾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한국서 명절 맞는 몽골인 오길새컨·무흐치맥 부부

“불황 풀려야 새 직장 얻을텐데...”

전남대 석사과정 '통역 전문가' 꿈 키워

“얼마 전 일자리를 잃었는데, 불황이다 보니 다른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고국으로 보낸 두 살배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2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외국인 근로자선교회에서 만난 몽골 출신의 오길새컨(33)·무흐치맥(여·32)씨 부부. 산업연수생과 유학생 신분으로 2년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 부부는 한국의 최대 명절인 설(26일)을 맞는 감회를 이렇게 털어 냈다.

이들 부부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일자리였다. 최악의 경기 한파로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오길새컨씨 역시 광주의 한 부품공장에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20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다. 취업 10개월만이었다.

오길새컨씨 가족은 그동안 공장에서 일해 번 돈 120만원(한 달 급여)으로 힘겨운 한국생활을 이어왔다. 무흐치맥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국어교육과 1년)을 밟고 있다.

남편의 심정이 가족간 생이별의 아픔으로 이어졌다. 생활이 여의치 않자 두 살 배기 어린 아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몽골의 친정 집에

맡긴 아들의 소식을 전해듣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하고 싶지만 꿈 같은 얘기다. 전화비용(한 달 평균 5만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이들 부부에게 명절은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무흐치맥씨는 “몽골에는 한국의 설과 같은 차강사르(Tsagaan sar·매년 음력 1월 1일)가 있다. 고향에 가서 아이와 함께 전통 명절 음식인 만두와 송편을 빚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가슴이 미어진다”며 “명절을 고국에 치르느라 ‘명절증후군’을 걱정하는 한국 주부를 모습에 부럽게만 느껴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 절망은 없다.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1~2년 한국에 더 머무르면서 문화와 언어 등을 배워 몽골에서 한국 통역 전문가로 활동하는 게 이들 부부의 꿈이다. 이들 부부는 이같은 희망 속에 보고 싶은 아이와의 만남을 잠시 접었다.

오길새컨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어는 짧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한국에 가는 것보다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교사의 학생 성추행” 교육청도 배상 책임”

광주지법 순천지원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면 이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22일 김모(52) 교사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A(13)양 등

3명과 부모들이 교사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양 등 3명에게 각 1천700여만원의, 3명의 부모에게 각 1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교원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

가 있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교사는 여수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2006년 9월부터 7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3명을 각각 4차례씩 총 12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강병규씨 징역 2년 구형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의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6개월간 수백 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습스

‘용산 참사’ 농성자 5명 구속

광주·전남 이틀째 촛불 집회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22일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채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 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화염병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불이 난데 대해서는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망루와 건물 내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 김모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용산 참사’와 관련 경찰의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가 이틀째 계속됐다. 민생민주광주전남회의는 이날 오후 6시 광주시 금남로 구 삼복서점 앞에서 강경진압 규탄집회를 가졌다.

연습스·김형호기자 khh@

니원침 (7711) 김종두



전남도 역점 추진 퇴적토 준설사업

나주시-환경청 위법 ‘공방’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시·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이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둘러싼 위법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2일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하천을 개발한 혐의(환경정책기본법 위반)로 나주시를 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 의뢰하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나주시는 영산강의 지류인 지석천 가운데 2.5km(등정보~지석대교) 구간의 나무를 잘라내고 하천 바닥을 파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1만㎡ 이상 규모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

고, 공사로 인해 지석천의 하천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하천 유지보수로 보고, 전남도와 협의를 거쳤다. 공사를 한 구간에 나무가 썩어 버려져 물 흐름을 막고 흩어 많이 쌓여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공사를 벌여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지석천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하천 주변에 여울형 돌보를 설치한 하천 준설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해 뒤늦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개발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services like individual mortgages and apartment loans.

행정인턴이 성매매 검거 일등공신

성매매

○20대의 경찰서 행정인턴이 사내 순찰을 통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과 남성들을 검거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 화제.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경찰행정인턴 함모(29)씨의 사내 순찰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수사에 착수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한 A(16)양 등 여중생 2명과 성매매 수자 김모(30)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한씨는 인터넷 성매매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채팅방에서 만난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수십차례 성매매를 해오다 경찰에 걸렸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학비 때문에...’ 대학 합격생 목매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양림동 박모(여·59)씨의 집에서 박씨의 아들 오모(18·고3)군이 목을 매 숨겨져 있는 것을 박씨가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오군은 광주의 한 4년제 대학교에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고 입학 준비하려 했으나,

과일행상을 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마음을 돌려 2년제 대학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살림이 넉넉치 않아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학교 보내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며 “학비가 너무 비싸 보낼 형편이 안됐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

Large advertisement for '스피치 리더십 지도자 과정' (Speech Leadership Leader Course) at Jocheon University, featuring a speaker and detailed course content.

Large advertisement for '옥션코리아' (Auction Korea) featuring a table of various auction items and their prices, including real estate, cars, and art.